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 · 적응력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Stress of Housewives Resulted from Home Management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 사 崔廷瑄
교 수 李貞玕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 : Jung Sun Choi
Prof. : Jeong Woo Lee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has a purpose to provide with the basic reference to decrease the housewives' stres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family life by investigating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 stress resulted from home management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nd by finding out relative importance of the variables which affect the stress of housewives resulted from home management.

For all above, the 550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housewives who have at least one child with their spouse in seoul. Finally, 433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housewives' education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communication satisfaction.

Second, housewives' stress is different significantly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of employment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ird, it showed the lower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re, the higher the housewives' stress is. And more influential variable of the two on home management stress is family cohesion.

Fourth, The background variables that influence in home management stress were education level, perceived life level and age.

Last, As a result of looking into relative influence of the variables on the housewives' stress, both psychological variable(perceived life level) and family cohesion were important variables in explaining housewives' home management stress.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가정을 둘러싼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발달은 가족의 가치, 목표 등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으며,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사용하는 인적 · 물적자원에 질적 · 양적 변화를 가져왔다(장명욱, 1984). 또한 가족구성원의 욕구는 가정내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확장되어 가정관리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따라 가정생활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개인 및 가정생활의 변화는 가정관리에도 변화를 유도하여, 가정은 현재 부여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미래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게 되었으며, 가정관리자는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가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정을 운영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보다 합리적 · 효율적인 가정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자원을 통솔하는 주부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대가정의 주부들은 가정자원 선택 및 관리에 있어서의 가중된 책임과 유한한 가정자원으로 다양해진 가족원의 요구와 가치, 향상된 생활표준을 충족시키는 등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가정관리시 더욱 많은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즉, 한 가정의 가족원이라는 개인적인 위치보다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주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과 가정의 안정적 · 발전적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부담을 안게됨으로써 다소간의 긴장감 내지는 부담감을 갖게 되고 이는 주부가 가정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스트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최덕경, 1992).

가정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부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이혼이나 죽음 등과 같은 생활사건에서 인지하는 스트레스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누적적인 만성적 스트레스로서 작용하며(이정우 · 황경혜 · 정진희, 1994; 2), 주부자신의 심리적 · 신체적 건강이나 생활만족 이외에 가족원 모두의 가정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정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가정관리능력, 가정관리유형 및 관리만족도 등과 같은 가정관리행동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지금수, 1992; 박은아, 1993; 이정숙, 1993; 안선자, 1994; 김미정, 1995),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가정자원관리의 궁극적 목표달성 과정에서 주부가 경험하게 되는 가정관리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 · 심리적변인외에 가족체계 내적자원인 가족응집력 · 적응력을 그 설명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고유하고 독특한 가족체계 특성에 따라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의의를 두며, 동시에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변인을 규명 · 제시

함으로써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좀더 광범위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정관리능력 저하의 방지와 아울러 효율적인 가정관리수행 및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 스트레스 및 선행연구

현대의 가정관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체계론적 입장에서 강조되고 있어, 그 의미와 중요성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가정의 기능 자체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관리의 개념도 달라지게 되어, 과거에 가정관리자의 주요과업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중심이 된 관리활동인데 비하여 현대 가정의 관리활동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의 인지적 · 정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가정관리자의 관리에 대한 가치나 표준이 물질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에서 정신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어 감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관리행동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자원의 사용과 분배에 관련된 가정관리행동은 더욱 중요성을 띄게 되었으며, 동시에 가정관리자인 주부는 복잡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과 가족원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수행이 필수적인 과업이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주부들은 가정자원 부족 및 가정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가족체계 내에서 가정생활을 주도하고 가족원들의 모든 문제를 수렴하는 위치로 인하여 가족 개개인이 갖게 되는 스트레스보다 더 많은 긴장감 내지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최덕경, 1992). 이와 관련하여 이정우 등(1994)도 주부가 경험하는 가정관리 스트레스는 관리행동의 결과로 부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으며, 주부자신의 정신건강이나 생활만족 이외에 가족원의 가정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라 하였다.

주부가 가정내 · 외의 인적 · 물적 자원을 관리할 때 느끼는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덕경(1992)은 가정관리의 대상을 애정 및 기질, 능력, 시간, 금전, 의 · 식 · 주생활, 가정설비 및 공공시설로 보고 이에 대한 가정관리 수행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관련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주부는 애정 및 기질, 금전, 식생활 등의 관리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관리 스트레스는 매개변인 중 가족 및 친구지지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가족지지도는 가정관리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주부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존재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일차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관리대상을 금전, 의 · 식 · 주생활, 애정 및 기질, 능력, 시간의 7개 하위영역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이정우(1994)등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가정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경변인(가사노동 및 남편관련 변인)에 따라서는 취업 · 비취업주부 모두 남편의 지지도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차이를 보여, 남편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가정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주부의 가정생활만족 증진을 위해서는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야 하고 또한 가정관리 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서는 주부 개인의 대처자원 외에도 가족적인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서린(1996)은 가정자원적정도 지각과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관리의 대상을 크게 인적 · 물적 · 환경적 자원의 3가지로 보고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가정자원적정도 지각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

정자원관리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가정자원적정도 지각이 높은 집단이 중간이나 낮은 정도의 집단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수준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가족체계 내적자원은 주부가 가정관리에서 느끼는 부담이나 긴장을 감소 ·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2. 가족응집력 · 적응력 및 선행연구

체계적 입장에서 가족의 기능을 설명하는 이론 중 Olson, Sprenkle과 Russell(1979)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은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성 및 가족기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응집, 적응, 의사소통이라는 세가지 중심개념으로 가족체계를 진단한다.

Olson, Sprenkle과 Russell(1983)의 정의에 따르면, 가족응집력이란 개인이 가족내의 다른 성원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되며, 이는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 가족외부 환경과 하위체계들간의 경계,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가족 공동의 시간과 가족원 개인의 사적시간 허용정도 등의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응집의 수준에 따라 과잉분리, 분리, 연결, 밀착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유리 또는 밀착수준 보다는 응집이 적당히 낮게 분리된 가족이나 적당히 높게 연결된 가족의 경우 독립과 연결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가족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Olson et al., 1983; Galvin & Brommel, 1986).

한편, Olson(1983) 등은 가족적응력을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단계상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가족체계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가족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리더쉽의 유형, 가족성원들간의 협상능력, 역할확립 및 역할분담 등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변화능력의 정도에 따라 경직, 구조, 융통, 혼돈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적응이 매우 낮거나 높은 경직된 가족이나 혼돈된 가족은 역기능적이고, 적응이 적당한 구조적 가족이나 융통적인 가족일 때, 가족의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Olson et al., 1983; Galvin & Brommel, 1986).

Deacon과 Firebaugh(1988)는 체계론에서 가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동적 속성을 지닌 개방체계라고 설명한다. 그리고체계내 역동성 요소로 응집력 · 적응력 · 의사소통 · 기능성(가정자원관리행동)의 4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순환모델의 핵심개념이기도 한 응집력과 적응력은 인적 하위체계에 포함되어 관리적 하위체계를 지원하는 가치 · 목표지향성 및 기본적 능력에 기여하므로 관리과정에 대한 반응을 제한할 수도 촉진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이연숙, 1996; 고보선, 1997).

이상과 같이 체계내 역동성개념에 응집력 · 적응력과 가정관리행동을 모두 포함시킨것은 이들 요소간의 연관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연숙(1996)은 그의 연구에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이외에 체계내 역동성요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응집력 · 적응력 · 의사소통 등 체계내 역동성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된 가족유형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역동성 요소에 의해 유형화된 가족유형변수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비해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체계 내적자원인 응집 · 적응과 가정관리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선(1995)은 가족응집력 · 적응력을 가족자원으로 보고, 이들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사노동수행방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높은 가족응집력 · 적응력은 가족원들의 유동적인 역할인식 및 융통성 있는 가사분담을 가능케 하는 등 취업주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가사노동을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가정관리만족과 나아가 가사노동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도 경감 · 완화시켜주는 가족자원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응집과 적응을 가족스트레스에 관련지은 이현옥(1989) 등은 응집과 적응이 가족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가 있어 이 변수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밝혔다. Lavee와 Olson(1991)은 4분면의 가족체계 유형중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HH) 가족인 경우 남편과 부인의 긴장이 적다고 하였으며,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최규련(1994)은 부부 모두 가족 응집성이 높을수록 갈등정도가 낮고, 가족 적응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갈등정도가 가장 낮다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수연 · 김득성(1994)의 연구에서도 응집과 적응이라는 가족체계 자원이 풍부할수록 맞벌이 부부가 겪는 역할갈등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응집력 · 적응력은 가정관리행동시 주부가 느끼는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3.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① 주부의 연령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경아, 1990; 이안나, 1991; 장윤옥, 1997; Brown, 1981; Jalowice & Powers, 1981). 김경아(1990), 이안나(1991), 차승희(1991) 등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상의 변화나 문제가 질적 · 양적으로 증가되어 관리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결국 이에 따른 긴장이나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난 데 기인한 결과라 하였다.

반면, 연령과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과는 큰 통계적 의미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들도 다수 있기는 하나, 스트레스 하위영역별로는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장병옥, 1985; 박난희, 1987; 전세경, 1988; 최덕경, 1992; 김미현, 1993).

②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견해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Gore & Mangione, 1983; 장병옥, 1985; 남유리, 1988; 김경아, 1990; 최덕경, 1992; 김미현, 1993)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주부가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다(장윤옥, 1997)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 및 스트레스 원인 파악, 문제해결능력 등이 풍부해져 스트레스 인지정도와 심리적 손상이 적어진 것이라 해석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도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주부의 교육수준과 스트레스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Jalowice & Powers, 1981; 이광주, 1988; 이안나, 1991)도 있다.

③ 취업여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비취업주부에 비해 낮다는 견해와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비취업주부에 비해 높거나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비취업주부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Kessler & McRae, 1982; Gore & Mangione, 1983; 한혜경, 1985; 남유리, 1988)는 주부의 취업은 보수 또는 직업에서 얻는 자기존중이나 사회적지지 등으로 인해 주부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Gore와 Mangione(1983)의 사회역할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비취업주부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Booth, 1977; 김경아, 1990; 이정우 외, 1994; 장윤옥, 1997)는 주부가 취업에서 얻는 정신건강의 이득은 취업주부가 여전히 수행해야 하는 전통적인 주부역할의 긴장과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상쇄되고 오히려 더 높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성역할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며,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할과중이나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경험한다는 다중역할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다(이정우 외, 1994; 재인용).

④ 종교 유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유무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병옥, 1985; 박난희, 1987; 남유리, 1988; 이광주, 1989; 김미현, 1993). 그러나 강인(1990)의 연구결과에서는 종교적 지원이 주부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최덕경(1992)의 연구에서도 종교는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주부가 종교가 없는 주부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았다.

⑤ 자녀수

자녀수와 스트레스 인지정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정도도 증가한다고 하였으며(박난희, 1987; 이광주, 1988; 김경아, 1990; 이안나, 1991; 김미현, 1993), 최덕경(1992)의 연구에서도 가정관리 대상 중 금전관리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집단이 1-2명의 자녀를 둔 집단보다 가정관리에 더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녀수가 많다는 것은 경제적 · 심리적 · 육체적으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녀 양육시 시간의 결핍과 활동의 제약 등의 문제를 경험케하므로 스트레스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⑥ 월평균 가계소득

대다수의 연구에서 소득과 스트레스 수준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Dohrenwend, 1973; Bernard, 1976; 김영규, 1980; 이광주, 1988; 김경아, 1990; 김미현, 1993)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최덕경(1992)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으며, 이는 소득이 하나의 스트레스 원으로서 가정관리행동시 주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편, 소득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다수 있으나(정민자, 1983; 장병옥, 1985; 남유리, 1988), 대체로 소득이 낮을 때 생활상에 불안정한 요소가 더 증가하므로 이들 요소가 스트레스 수준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⑦ 남편의 직업

남편직업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언급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나, 남편의 직업이 비전문직인 집단에서 부부갈등 정도가 높게 나타난 김재경 · 문숙재(1992)의 연구결과와 남편의 직업에 따라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인 최덕경(1992)의 연구결과로 볼 때, 남편의 직업에 따라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심리적 변인

① 성역할태도

가정관리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를 관련시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부부의 가정내 역할과 스트레스에 관한 이윤미(1995)의 연구에서 부인은 가정생활문제 하위영역 가운데 가사 및 직무문제 스트레스에 있어서 성역할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역할태도는 주부 자신의 가정관리에 대한 태도와 가치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의사소통만족도

의사소통과 가정관리 스트레스를 관련시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의사소통은 가족원간의 갈등해결과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게 해주는 등 긍정적역할을 담당하므로 관리체계에서 매우 주요한 자원이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박혜경, 1991; 이정우 · 이정숙, 1992; 이정우 · 김경숙, 1993; 박은아, 1993; 안선자, 1995).

의사소통과 스트레스를 연관시킨 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우 · 장병옥(1987), 최영희(1988)의 연구에서 역기능적 · 폐쇄유형의 의사소통을 행하는 주부가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김경아

(1990)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의 주부일수록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의 모색을 가능케 하므로 주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③ 내외통제성

통제소재에 따른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연구한 장윤옥(1997)은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이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 보다 인적 ·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Lefcourt (1981) 등의 연구 및 백기청(1987)의 연구에서도 내외통제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수준이나 그 부적응이 증감된다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내외통제성은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수준도 저마다의 성향과 기질을 반영하는 내외통제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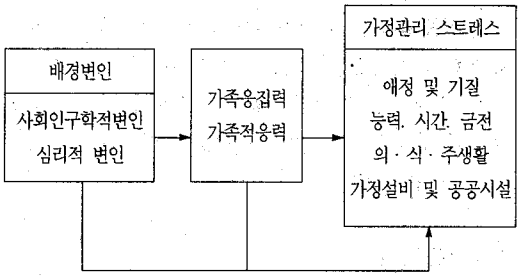
④ 생활수준인지도

이정우 · 장병옥(1987)의 주부 자신이 지각한 경제적만족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적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고, 이정우 · 최덕경(1992)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이 부부문제, 자녀문제, 가사작업 수행문제, 경제문제를 낮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를 연구한 최덕경(1992)의 연구에서도 가정관리 대상인 금전, 의생활, 가정설비 및 공공시설 관리에서 생활수준을 낮게 인지한 집단의 주부가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주부의 스트레스는 생활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특히 같은 상황 아래서도 주부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정도나 인지상태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1]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 · 적응력, 가정관리 스트레스는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 · 적응력은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 가족응집력 · 적응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가족응집력 · 적응력의 상대적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2. 용어의 정의

1) 가족응집력

가족응집력이란 가족원 상호간에 정서적 유대 · 애정 · 관심 · 협력 등 상호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로, 개인이 가족내의 다른 성원들과 어느 정도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주부가 느끼는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2) 가족적응력

주부가 인지한 가족성원들의 가족체계 변화능력 즉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단계상 일어날 수 있는 긴장에 반응하여 가족관계에서의 역할 · 규칙 ·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족적응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부가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3) 가정관리 스트레스

가족의 욕구충족과 만족이 극대화되고 가정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가정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계획 ·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부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부담감 내지 긴장감 정도를 가정관리 스트레스라 한다.

3. 측정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심리적 변인 척도

선행연구를 기초로하여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인지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종교유무, 자녀수, 월평균 가계소득, 남편 직업을 포함한 7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심리 · 주관적 변인으로는 성역할태도, 의사소통만족도, 내외통제성, 생활수준인지도의 4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성역할태도 척도는 지금수(1992), 하상희(1994), 이윤미(1995)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만족도 척도는 순환모델에서의 가족기능 파악을 위한 개념인 객관적 · 포괄적 차원의 의사소통과는 달리 조사대상자인 주부가 주관적 · 심리적으로 느끼는 가족원 상호간 의사소통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김경숙(1993), 이명숙(1995), 장병옥(1997)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외통제성 척도는 고은숙(1992), 김정희(1998), Mckenna(1985) 등의 척도를 참고로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외적통제성향이 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생활수준인지도 척도는 주부가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정도의 생활수준에 속하는지를 인지하는 정도로, 그 범위를 최고 10점 최저 1점 분포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함을 의미한다.

2) 가족응집력 · 적응력 척도

주부가 인지한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척도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FACESⅢ를 한국실정에 맞게 번안 · 수정하여 사용한 최연실(1996), 한정화(1997), 김정희(1998)등의 연구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가족응집력 13문항, 가족적응력 10문항의 총 23문항이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응집력에 관한 4, 8번 문항은 역코딩)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가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가정관리 스트레스 척도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酒井(1971)이 개발하여 이정우 등에 의해 수정 · 보완하여 사용된 가정관리능력 척도를 기초로 한 최덕경(1992)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척도는 애정 및 기질, 능력, 금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시간, 가정설비 및 공공시설의 8개 하위영역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및 처리

서울시에 거주하며, 1명이상의 자녀를 둔 30-50대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1998년 8월 28일-9월 17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부된 총 550부의 질문지 중 433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한 Cronbach'α 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33)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주부의 연령	30대	117	26.9
	40대	224	51.8
	50대	92	21.3
교육수준	중졸이하	60	13.9
	고졸	255	59
	전문대/대졸이상	117	27.1
취업여부	비취업	263	60.9
	취업	169	39.1
종교유무	유	312	72.1
	무	121	27.9
자녀수	1명	53	12.2
	2명	244	56.4
	3명 이상	136	31.4
월평균 가계소득	180만원 미만	101	23.3
	180이상-210미만	108	24.9
	210이상-320미만	123	28.4
	320만원 이상	101	23.3
남편의 직업	단순노무직	61	14.2
	사무직	113	26.4
	관리 · 전문직	114	26.7
	자영업	140	32.7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응집력 · 적응력과 가정관리 스트레스

1)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응집력 · 적응력

주부가 인지한 가족응집력 · 적응력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배경변인 가운데 주부의 교육수준, 자녀수,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라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수준 모두에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육수준이 전문대/대졸이상인 주부집단이 고졸이나 중졸이하의 주부보다 가족응집력 · 적응력 수준이 높았으며, 자녀가 1-2명인 가족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보다 가족응집력 ·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집력과 적응력은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 만족한 주부집단일수록 가족응집력 · 적응력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만족한다는 것은 가족의 응집 · 적응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Olson et al., 1982; Galvin & Brommel, 1986) 가족내의 응집력 촉진과 적응력 활성화를 통하여 역기능적인 수준의 가족을 기능적인 수준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가족체계의 구성, 유지, 변화에 있어 중요한 촉매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부의 연령과 내외통제성에 따라서는 가족응집력만이 차이를 보여, 연령이 30대인 주부집단이 40, 50대 주부에 비해 가족응집력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주부집단이 더 높은 응집력을 보이고 있었다.

월평균 가계소득과 성역할태도에 따라서는 가족적응력 수준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320만원 이상)의 적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180만원 미만) 및 210-320만원 미만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역할태도에 따라서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는 주부집단이 전통적 · 중립적 태도를 갖는 집단의 주부보다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선영(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관리 스트레스

배경변인에 따라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배경변인 가운데 주부의 취업여부와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라 전체 및 일부하위영역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즉 가정관리전체 및 4개 하위영역에서 취업주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비취업주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주부가 취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신건강의 이점이 전통적인 주부역할의 긴장과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인해 상쇄되고 오히려 더 높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응집력 · 적응력

배 경 변 인		N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M	SD	F	D	M	SD	F	D
주부의 연령	30대	117	3.79	.43	3.45*	A	3.31	.44	2.26	
	40대	224	3.66	.50		B	3.25	.52		
	50대	92	3.62	.53		B	3.17	.48		
교육수준	중졸이하	60	3.57	.54	4.20*	B	3.15	.47	5.96**	B
	고졸	255	3.67	.50		B	3.21	.50		B
	전문대 및 대졸	117	3.79	.44		A	3.38	.45		A
자녀수	1명	53	3.67	.49	4.43*	AB	3.32	.41	4.40*	A
	2명	244	3.74	.47		A	3.29	.48		A
	3명이상	136	3.59	.52		B	3.15	.53		B
월평균 가계소득	180만원 미만	101	3.68	.50	1.92		3.19	.52	3.86*	BC
	180-210만원	108	3.74	.48			3.29	.47		AC
	210-320만원	123	3.60	.49			3.16	.53		B
	320만원 이상	101	3.74	.49			3.36	.42		A
성역할 태도	하	144	3.69	.49	.43		3.18	.50	7.07**	A
	중	146	3.71	.50			3.19	.46		A
	상	142	3.66	.49			3.37	.48		B
의사소통 만족도	하	137	3.28	.42	149.64***	C	3.03	.52	31.73***	C
	중	152	3.69	.36		B	3.23	.46		B
	상	144	4.07	.37		A	3.47	.39		A
내외 통제성	하	127	3.50	.49	16.68***	C	3.21	.54	.65	
	중	144	3.68	.47		B	3.24	.42		
	상	161	3.83	.48		A	3.28	.51		

* P<.05 ** P<.01 *** P<.001

주: 심리적변인은 평균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상중하의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있다는 성역할이론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 만족할수록 가정관리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 결과는 김경아(1990), 이윤미(1994)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원간의 원활하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결방안의 모색을 가능케함으로써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주부의 연령에 따라서는 식생활 및 가정설비 · 공공시설 관리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30대 주부집단이 40, 50대 주부에 비해 식생활과 가정설비 · 공공시설 관리에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관리 스트레스

배경변인		N	가정관리스트레스																									
			애정 및 기질			능 력			시 간			금 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설비			전 체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주부의 연령	30대	117	2.88			2.56			2.81			3.01			2.61			3.11		A	2.65			2.74		A	2.82		
	40대	224	2.83	.18		2.45	1.09		2.68	.71		3.01	.01		2.52	1.95		2.84	5.17**	B	2.56	1.79		2.45	6.39**	B	2.70	2.05	
	50대	92	2.84			2.53			2.73			3.02			2.38			3.01		AB	2.39			2.51		B	2.73		
교육 수준	중졸이하	60	2.80			2.43			3.01		A	3.23		A	2.57			2.93			2.62			2.61			2.78		
	고 졸	255	2.85	.14		2.45	2.81		2.64	3.98*	B	3.02	3.86*	AB	2.55	1.19		2.92	1.00		2.53	.17		2.49	1.46		2.72	.45	
	전문대/대졸이상	117	2.85			2.63			2.77		B	2.88		B	2.41			3.04			2.55			2.61			2.76		
취업 여부	비취업	263	2.83	-.65		2.46	-1.55		2.67	-1.52		2.93	-2.62**		2.44	-2.23*		2.89	-2.18*		2.49	-1.51		2.48	-2.26*		2.69	-2.54*	
	취 업	169	2.87			2.57			2.82			3.13			2.63			3.05			2.64			2.64			2.82		
종교 유무	유	312	2.84	-.32		2.46	-1.71		2.71	-.49		3.01	.15		2.49	-.91		2.93	-1.14		2.57	.77		2.51	-1.62		2.72	-1.03	
	무	121	2.86			2.59			2.76			3.00			2.57			3.02			2.49			2.63			2.78		
자녀수	1명	53	2.79			2.75		A	2.95			2.86			2.57			3.07			2.42		B	2.65			2.79		
	2명	244	2.81	1.02		2.43	4.36*	B	2.67	2.00		3.00	1.62		2.51	.15		2.90	1.66		2.47	3.74*	B	2.51	.90		2.70	1.73	
	3명이상	136	2.92			2.53		AB	2.75			3.09			2.50			3.01			2.74		A	2.56			2.79		
월평균 소득	180만원 미만	101	2.85			2.44			2.76			3.16		A	2.57			2.90			2.56			2.58			2.76		
	180-210만원	108	2.79	.28		2.48	.40		2.58	1.17		3.08	3.12*	A	2.48	1.66		2.98	.29		2.52	.20		2.49	.74		2.72	.42	
	210-320만원	123	2.87			2.54			2.80			2.96		AB	2.60			2.99			2.60			2.59			2.77		
	320만원 이상	101	2.86			2.52			2.75			2.84		B	2.37			2.94			2.51			2.49			2.71		
남편의 직업	단순노무직	61	2.91			2.47			2.75			3.21		A	2.64			3.12		A	2.84		A	2.69			2.85		
	사무직	113	2.81	.23		2.50	.16		2.76	.12		3.05	4.29**	A	2.46	1.35		2.78	4.17**	B	2.70	4.03**	AC	2.56	1.82		2.72	1.74	
	관리전문직	114	2.84			2.47			2.69			2.79		B	2.43			2.89		AB	2.38		B	2.43			2.67		
	자영업	140	2.83			2.53			2.71			3.06		A	2.59			3.07		A	2.46		BC	2.56			2.77		
성역할 태도	하	144	2.97		A	2.55			2.72			3.01			2.40			2.84			2.54			2.54			2.76		
	중	146	2.73	3.92*	B	2.44	.95		2.70	.18		2.93	1.58		2.50	2.92		3.00	2.48		2.48	.82		2.51	.37		2.69	1.31	
	상	142	2.84		AB	2.51			2.77			3.10			2.65			3.03			2.63			2.58			2.78		
의사 소통 만족도	하	137	3.12		A	2.70		A	2.95		A	3.31		A	2.68		A	3.12		A	2.65			2.69		A	2.96		A
	중	152	2.82	17.67***	B	2.48	10.05***	B	2.75	8.70***	A	2.91	15.14***	B	2.48	4.60*	B	2.91	4.74**	B	2.57	1.76		2.48	4.43*	B	2.70	20.95***	B
	상	144	2.60		C	2.32		B	2.49		B	2.83		B	2.38		B	2.85		B	2.43			2.47		B	2.57		C
내외 통제성	하	127	2.89			2.65		A	2.88		A	3.10			2.60			3.01			2.52			2.56			2.82		
	중	144	2.91	1.86		2.46	4.07*	B	2.82	5.90**	A	2.95	1.23		2.52	1.24		2.90	.68		2.56	.10		2.53	.06		2.74	2.32	
	상	161	2.76			2.41		B	2.53		B	2.99			2.44			2.96			2.57			2.53			2.68		
생활 수준 인지도	하	109	2.80			2.45			2.65			3.17		A	2.57		A	2.94			2.52			2.55			2.74		
	중	211	2.93	2.59		2.50	.57		2.80	1.22		3.04	7.22**	A	2.58	3.45*	A	2.96	.14		2.56	.08		2.54	.13		2.78	1.75	
	상	111	2.74			2.55			2.67			2.78		B	2.33		B	2.92			2.53			2.51			2.66		

* P<.05 ** P<.01 *** P<.001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은 주부들이 경험부족과 가정운영의 미숙, 결혼이나 출산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 재적응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직업별로는 금전, 식생활, 주생활 관리 스트레스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언하면, 특히 금전관리 스트레스는 남편직업이 전문직인 집단이 타 직업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생활관리 스트레스는 남편직업이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전문직 집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직업지위가 한 가정의 소득수준 이나 생활수준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내외통제성에 따라서는 능력 및 시간관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집단보다 외적통제성향이 강한 집단의 주부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주부의 경우 스트레스적 상황이나 사건에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러한 상황들을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주체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것으로 해석된다.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라서는 하위영역인 금전, 의생활관리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한 상집단이 중 · 하집단에 비해 금전 및 의생활 관리에서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3. 가족응집력 · 적응력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1)]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가족응집력이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응집력은 전체 가정관리 스트레스와 모든 하위영역(주생활 제외)의 관리 스트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는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가정관리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친밀감이 돈독하다고 지각할 때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집력이 높은 가정의 주부일수록 효율적인 가정자원관리를 하고, 부부간 역할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적다는 선행연구(김수연 · 김득성, 1994; 최규련, 1994; 이연숙, 1996)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

한편, 가족적응력은 전체 가정관리 스트레스와 하위영역의 애정 및 기질, 능력관리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주부는 가족적응력이 낮을수록 가정관리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였고, 적응력이 높을수록 전체 가정관리와 애정 및 기질, 능력관리시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언하면, 적응력이 크다는 것은 개인, 가족의 요구, 환경변화에 따라 가정 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Wilkenfield, 1988)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응력이 높은 가정의 주부일수록 가정 내 · 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가족원의 가치 · 욕구 · 목표 등에 적응하거나 이를 적절히 변화시킴이 가능하고 또한 가족원 개개인의 지식 · 기능 · 체력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융통성과 적응능력이 높아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체계 내적자원인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모두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응집력(β =-.38)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가 가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상황에 대한 대처와 변화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족원이 정서적으로 상호 친밀하여 화합과 결속력이 높을 때 주부로서는 가정관리의 어려움이나 긴장,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1)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 자녀수와 높은 상관을 보인 결혼지속년수, 가족수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4〉 가족응집력 · 적응력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변 인	애정 및 기질	능력	시간	금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설비 및 공공시설	가정관리 스트레스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가족 응집력	-.47 -.31***	-.45 -.31***	-.49 -.26***	-.44 -.27***	-.50 -.29***	-.30 -.19***	-.19 -.09	-.26 -.18***	-.41 -.38***
상수	4.95	4.16	4.55	4.62	4.35	4.07	3.25	3.50	4.24
F 값	45.58***	44.53**	30.74***	33.66**	38.62***	16.63***	3.86	14.42***	72.89***
R^2	.10	.09	.07	.07	.08	.04	.01	.03	.14
D-W계수	1.99	1.90	1.78	1.82	1.95	1.76	1.92	1.87	1.76
가족 적응력	-.23 -.15**	-.23 -.16**	-.08 -.04	-.11 -.07	-.09 -.05	-.08 -.05	-.07 -.03	-.02 -.01	-.14 -.13**
상수	3.95	3.25	2.99	3.38	2.82	3.22	2.76	2.61	3.19
F 값	9.68**	10.72**	.74	2.10	1.25	1.14	.45	.09	7.33**
R^2	.02	.02	.00	.00	.00	.00	.00	.00	.02
D-W계수	1.96	1.88	1.79	1.82	1.97	1.77	1.92	1.90	1.78

* P<.05 ** P<.01 *** P<.001

4.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배경변인 및 가족응집력 · 적응력이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교육수준(β =.13), 가족응집력(β =-.34), 생활수준인지도(β =-.21), 연령(β =-.11)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한 것은 고학력일수록 자아실현의 욕구나 능력발휘의 기회를 더 추구하게 되고 단순 · 반복적인 측면을 지닌 가정관리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가정관리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한 결과는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이 주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남편이나 가족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낮다고 한 이정우 외(1994), 최덕경(1992)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을수록 가정관리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수준을 낮게 인지한 경우 경제적 여유나 인적 · 물적자원에 대한 활용도나 융통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자원관리에 제약을 느끼게 되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관리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한 결과는 연령이 낮은 주부들이 오랜 결혼생활로 가정생활에 능숙함과 노련함을 갖춘 세대에 비하여 경험부족이나 가정운영 미숙, 결혼 출산 등 환경의 변화에 재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결과로 생각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애정 및 기질관리 영역에서는 생활수준인지도(β =-.19), 의사소통만족도(β =-.15), 성역할태도(β =-.14)의 심리적 변인이 주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인지도와 의사소통만족도가 낮을수록 애정 및 기질관리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주부일수록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높은

〈표 5〉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변인		애정 및 기질		능력		시간		금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설비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변인	주부의 연령	-.01	-.11	-.00	-.04	-.00	-.03	-.01	-.06	-.01	-.10	-.00	-.04	-.03	-.18**	-.01	-.09	-.01	-.11*
	교육수준	.03	.10	.05	.16**	-.01	-.03	.01	.03	-.00	-.01	.05	.15**	.03	.09	.04	.14*	.03	.13*
	취업여부(비취업)	.03	.02	.01	.01	-.04	-.02	-.13	-.08	-.07	-.04	-.02	-.01	-.15	-.07	-.08	-.05	-.04	-.03
	종교유무(유)	.03	.02	-.09	-.05	-.02	-.01	.05	.03	-.08	-.04	-.07	-.04	.10	.05	-.12	-.07	-.02	-.02
	자녀수	.05	.06	-.04	-.04	-.11	-.09	.08	.07	.04	.04	.04	.04	.24	.18**	.02	.03	.03	.05
	월평균소득	.00	.10	.00	.14*	.00	.10	-.00	-.07	-.00	-.03	.00	.06	-.00	-.04	-.00	-.06	.00	.06
	남편직업(전문직)	.00	.00	-.08	-.05	.08	.04	-.05	-.03	.11	.06	-.15	-.09	-.34	-.15	-.10	-.07	-.05	-.05
	(사무직)	-.03	-.02	.02	.01	.14	.07	.05	.03	.02	.01	-.27	-.15*	-.04	-.02	-.04	-.03	-.03	-.02
	(자영업)	-.03	-.02	.04	.03	.09	.04	.04	.02	.14	.08	.05	.03	-.30	-.14	-.02	-.01	.01	.01
심리변인	성역할태도	-.16	-.14**	.00	.00	.01	.01	-.05	-.04	.07	.05	.12	.10	-.08	-.05	-.05	-.05	-.03	-.04
	의사소통만족도	-.19	-.15*	-.02	-.02	-.13	-.08	-.17	-.13	.10	.07	-.13	-.10	-.02	-.01	-.16	-.13	-.11	-.13
	내외통제성	.09	.06	-.08	-.05	-.24	-.11*	.01	.00	.06	.03	.02	.01	.05	.02	.09	.06	.01	.01
	생활수준인지도	-.11	-.19**	-.07	-.13*	-.07	-.10	-.13	-.22***	-.08	-.12	-.08	-.13*	.01	.02	-.06	-.11	-.08	-.21***
가족응집력		-.38	-.25***	-.43	-.30***	-.39	-.21**	-.36	-.23**	-.65	-.38***	-.22	-.14	-.20	-.10	-.22	-.16*	-.36	-.34***
가족적응력		-.03	-.02	-.14	-.09	.06	.03	.10	.06	.05	.03	-.03	-.02	-.03	-.02	.07	.05	-.00	-.00
상수		5.59		4.82		5.91		5.53		4.94		3.77		3.91		3.88		4.91	
F값		4.82***		5.01***		3.16***		5.59***		4.08***		3.13***		2.30**		2.80***		7.25***	
R^2		.16		.16		.11		.18		.14		.11		.08		.10		.22	
Durbin Watson계수		1.95		1.97		1.90		1.76		1.97		1.78		1.98		1.85		1.81	

* P<.05 ** P<.01 *** P<.001

주 : 취업여부의 기준변수: 취업주부/ 종교유무의 기준변수: 종교 없음/ 남편직업의 기준변수:단순노무직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교육수준(β=.16), 월평균 소득(β=.14), 생활수준인지도(β=-.13)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을 낮게 인지할수록 능력관리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간관리에는 배경변인 중 내외통제성(β=-.11)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외적통제성향을 지닌 주부일수록 시간관리에 더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금전, 식생활관리에서는 배경변인 중 생활수준인지도(β=-.22, β=-.13)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생활수준을 낮게 인지할수록 금전 및 식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생활관리 스트레스는 자녀수(β=.18)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많으므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가사노동의 양이나 주거사용의 갈등 내지 불편함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은 가족응집력, 생활수준인지도, 교육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5.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배경변인 및 가족응집력 · 적응력의 상대적 영향력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배경변인, 가족응집력 · 적응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위계적 회귀분석

		가정관리 스트레스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부의 연령	-.00	-.05	-.00	-.05	-.01	-.11*
	교육수준	.01	.04	.03	.13	.03	.13*
	취업여부(비취업)	-.10	-.09	-.04	-.04*	-.04	-.03
	종교유무	-.04	-.03	-.04	-.03	-.02	-.02
	자녀수	.05	.07	.01	.02	.03	.05
	월평균소득	-.00	-.02	.00	.07	.00	.06
	남편직업(전문직)	-.15	-.12	-.09	-.08	-.05	-.04
	(사무직)	-.09	-.07	-.05	-.04	-.03	-.02
	(자영업)	-.05	-.04	-.00	-.00	.01	.01
심리적 변인	성역할태도			-.04	-.04	.01	.01
	의사소통만족도			-.32	-.36***	-.11	-.12
	내외통제성			-.01	-.01	-.03	-.04
	생활수준인지도			-.08	-.21***	-.08	-.21***
가족응집력						-.36	-.34***
가족적응력						-.00	-.00
상수		2.89		4.25		4.91	
F 값		1.24		5.99***		7.25***	
R^2		.03(.027)		.17(.165)		.22(.217)	
R^2의 증가량				.14(.137)		.05(.052)	

* P〈.05 ** P〈.01 *** P〈.001

〈표 6〉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한 1단계 분석결과 이들이 전체 가정관리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3%였으며, 다음 2단계에서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약 17%로 1단계에 비해 약 14%의 설명력이 증가되었으며, 의사소통만족도(β =-.36), 생활수준인지도(β =-.21), 교육수준(β =.13)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응집력 · 적응력을 포함한 모든 변인이 투입된 3단계 분석결과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약 22%였다. 따라서 각 독립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는 심리적 변인군, 가족응집력 · 적응력군 등의 순이었으며, 가족체계의 내적자원인 가족응집력과 심리적 변인인 생활수준인지도가 가정관리 스트레스의 감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V.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응집력 · 적응력을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라 가족응집력 · 적응력 수준 모두에 차이를 보인 것은 의사소통이 가정내 응집력을 촉진시키고 적응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가족의 화합과 단결, 융합을 위

해 필수적인 요건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주부집단이 높은 적응력을 보인 것은, 일상적이고 고정적인 것을 고수하거나 옛것을 고집하는 융통성 없는 태도보다는 변용하는 가치와 태도에 유연성이 있을 때 사회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해짐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주부의 가정관리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취업여부와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수준이 비취업주부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취업주부가 가사노동 사회화나 시간절약 재화를 사용하는 등 물적자원 관리에는 다양한 대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회화 및 다른 대안으로의 대체가 쉽지 않은 인적자원 관리에서 여전히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는데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주부의 어머니 역할과 자녀양육 역할 등 가정 고유의 기능인 주부역할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정차원의 대처(가족원 · 남편의 분담)와 사회적차원의 대책(주부의 가정 · 사회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제도들의 시행, 사회복지기관, 탁아기관 등의 설립)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의사소통은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을 낮추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가족원간에 이루어지는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주부가 제 가정자원을 관리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이나 긴장을 해소할 방안(가족원의 정서적지지 등)을 강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부의 효율적인 가정관리 수행과 만족스런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응집력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족원간에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지속 · 발전시키는 것은 가족의 정서적 안정, 바람직한 가족환경 및 가족관계 형성을 유도하여 스트레스나 위기에 대한 저항력까지도 갖출 수 있게하므로 가족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법 개발이나 가족관계와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을 살펴본 결과, 가족응집력과 생활수준인지도가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주요 영향변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가족원간의 긴밀한 정서적 유대와 주부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자각이 동시에 조성된다면 가정관리 스트레스는 감소될 것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변수로 가족체계 내적자원인 가족응집력 · 적응력을 포함시킴으로써, 고유하고 독특한 가족체계 특성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원으로서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집력이 주요 영향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물질주의 가치가 팽배한 사회속에서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은 가정이 소유한 객관적 · 물질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 가정관리자인 주부와 가족원 모두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유지 · 존속케하는 중요한 가족자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부의 관리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 교육시에는 가족원간의 역동적 관계인 인적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원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 ·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때,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보선(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고은숙(1992). 취업부인의 스트레스,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김경숙 · 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13(1), 1-11.

김경아(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김미정(1995). 신세대 주부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및 관리행동.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김미현 · 류점숙 · 신효식(1993).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Stress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김수연 · 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_____(1994).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21-134.

김정희(1998). 주부가 인지한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노후경제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남유리(1988).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연구 비교.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박미금(1984).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박은아(1993). 주부의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관리행동.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백기청(1987).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서리나(1994). 주부의 가족자원적정지각과 대상별 가정관리 수행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안선자(1995).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오경희(1995).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 및 가사협조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_____(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이금 · 박옥임(199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25.

이명숙(1995).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 · 가정관리전략 · 가정관리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 · 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3.

이안나(199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이연숙(1996). 가족체계내 역동성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4(4), 295-308.

_____(1996). 체계내 역동성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이윤미(1995). 배우자에 대한 가정내 역할기대 · 수행평가의 차이가 부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정우(1980). 가정관리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_____ · 김경숙(1993).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 29-46.

_____ · 이정숙(1992).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0(3), 241-256.

_____ · 장병옥(1987). 기혼여성의 의사소통 유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 26.

_____ · 최덕경(1992).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와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_____ · 황경혜 · 정진희(199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15.

장명욱(1984). 가정관리학. 서울: 교문사.

장병옥(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장윤옥 · 정서린(1997). 가정자원적정도 지각과 통제소재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_____(1997). 가정자원, 통제소재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정서린(1996).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최덕경(1992). 가정관리시 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최동숙(1991). 가정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7.

최연실(1996). 가족적응력 · 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5.

Billings, A.G. & Moos, R.H.(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 and social resources in alter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157.

Booth, A.(1977). Wife's employment and husband's stress: A replication and repu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4).

Deacon, R.E. & Firebaugh, F.M.(1975).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1-212.

_____(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2nd ed.). Boston: Allyn & Bacon.

Fitzsimmons, V.S., Hafstrom, J.L. & Im Joeng-Bin (1991).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계의 재정관리행동: Deacon & Firebaugh 모델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81-94.

Galvin, K.M. & Brommel, B.J.(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12-21.

Goode, W.J.(1960). A theory of role strain. *American Socialogical Review* 25.

Gore, S. & Mangione, T.W.(1983). Social roles, sex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dditive and interactive models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 300-312.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N.J.: Prentice Hall Inc., 24-26.

Jalowice, A. & Powers, H.J.(1981). Stress and coping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sing Research* 30, 10-15.

Kessler, R.C. & McRae, J.A. Jr.(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an. *American Socialogical Review* 47.

Lavee, Y.(1985). *Family types and family adaptation to 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_____ & Olson, D.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786-798.

Lefcourt, H.M., Miller, R.S., Ware, E.E. & Sherk, D. (1981). Locus of control as a modifi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ors and moo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57-369.

McCubbin, H.I. et al.(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55-871.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Strickland, B.R.(1978). Internal-external expectancies and health behavi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4), 1192-2111.

Selye, H.(1965). The stress of life. N.Y.: McGraw-Hill.

Walson, C.O. & Fitzsimmons, V.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of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a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193-214.